

기 원 문

생명의 기운이 허공을 장엄하고 만나는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한 이때에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중생제도라는 큰 뜻을 위해 이땅에 오신 부처님은 모두가 존귀한 부처의 씨앗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의 하늘에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서원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은 인간의 물질편리에 대한 무한한 집착,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분별없는 개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불평등의 해소는 절실하며 크게 훼손된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시급하기만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생명의 존엄과 인성의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무거운 짐이며 종교적으로 응답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기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정성으로 당신이 걸으셨던 실천의 길을 따라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며 지혜의 등을 들고 참 나를 찾아 길을 떠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선조의 빛나는 정신으로 모든 생명이 안온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지혜가 없이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우쳐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 신뢰와 믿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소중한 인연 공덕으로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을 저마다의 마음에 담아 공업중생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도록 희망을 밝히겠습니다.

마음 깊이 등을 밝히고 세상을 맑게 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발원하오니
부디 섭수하시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